

## 히브리서 5장

히브리서 4장 14-5장 10절

우리의 큰 대제사장

### <히브리서 4-5장>

□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은 사도이시며,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었다(3:1).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졌다. 그 분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신적 속성을 지니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.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 더 설명한다. 그 분은 “우리의 큰 대제사장(4:14)”이다. 그 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(4:14).

□ 승천하신 이 : 하늘들을 통과하신 이

▶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,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.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시다. 우리는 믿는 도리를 바르게 해야한다.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신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. 그렇다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보이시고 있는가?

### 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

□ 히브리서 4장 15절

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

□ 동정하다: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개념 너머의 체휼하신다는 의미.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의 범주를 넘어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 포함.

▶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 동참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다. 그 분은 죄가 없으시다.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셨다. 철저히 외면받으셨고, 철저히 버림받으셨다.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 고통을 체휼하심으로 충분히 경험하셨다.

□ 히브리서 4장 16절

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.

▶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긍휼하심을 얻었다.

† 히브리서 저자는 도우심을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현재형으로 사용한다. 과거 십자가 사건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써 우릴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. 모든 시험과 고통을 스스로의 몸에 채워넣으셨고,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허무셨다.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이유도,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.

## ②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써 자기 백성을 중보하시는 분

### □ 히브리서 5장 1절

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

### □ 인간 대제사장, 예수 대제사장

▶ 공통점: 하나님의 부르심(4-5절)

▶ 차이점: 죄의 유무(2-3절;히4:14)

### □ 시편 2편(아들), 시편 110편 4절(멜기세덱의 반차) 인용 : 아들의 신분과 대제사장의 연관성

▶ 대제사장 : 예수님이 누구신가?, 우릴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줌

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예수 대제사장은 탁월하다.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 예수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. 더 이상 양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. 양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, 어린 양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다.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 외에는 결코 중보자가 없다.

## ③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

어떤 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,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가?

### □ 히브리서 7절-8절

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

## ☑ 고난과 순종, 눈물의 기도

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다. 고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셨다(겔세마네 기도, 눅22:42).

▶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셨고, 그 결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(히5:9). 육체에 계실 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함으로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의 근거가 되었다.

† 큰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다(히4:15). 그러나,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물이 필요하다(히5:3). 반복하여 죄 짓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.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다. 우리보다 더 극심한 연약함과 고통 속에 계셨지만 결국 이겨내시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.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힘을 더하신다. 두려워말고, 믿는 도리를 바르게하자!

## † 히브리서 4장-5장을 통해 생각해봐야할 점

- 1)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예수 대제사장
- 2)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하는가?
- 3)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를 바라보자!